

광한루, 600년 기념 무료개방

남원시, 3·7일 해당... 오늘부터 17일까지 공연

남원시는 광한루 건립 600년을 기념하고 광한루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나누기 위해 기념식이 진행되는 오는 3일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월칠석인 7일 광한루원을 무료로 개방한다.



남원시는 광한루 건립 600년 기념식이 진행되는 오는 3일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월칠석인 7일 광한루원을 무료 개방한다.

는 칠월칠석인 7일 광한루원을 무료 개방한다.

광한루 600년 기념주간의 축제 일정은 ▲2일 남원 아리랑 '오늘이 오 늘이소서' 야간 공연 ▲3일 오후부터 신관사포 부임행사, 광한루 국보 승격 학술대회, 사랑의 편지 타임캡슐, 600 타복행사, 전통놀이 체험, 유명연예인 초청 축하공연,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가 진행되고 ▲4일에는 신관사포 부임행사, 전통놀이 체험행사가 있으며 ▲7일 야간에는 KBS 국악 한마당 공연이 한여름밤 광한루원에서 펼쳐진다.

광한루원 앞 요전둔지에서는 한여름밤의 남원 막걸리 축제(8.2 ~ 8.4)로 통기타, 색소폰, 트로트 공연과 즉석 노래자랑이 진행되고, 광한루원 특설무대에서는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8월 17일까지 매일 20시에 통기타, 앙상블, 성악, 국악, 농악, 무용, 합창, 가요, 창극 등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사랑상품권, 정식 발매 '축포'

순창농협 본점 및 특설무대에서 퍼포먼스

순창군이 1일 순창사랑상품권 정식 발매를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순창농협 본점 특설무대에서 갖고 본격적인 상품권 유통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 순창군의회, 지역 관공서장, 사회단체장, 주민 등 총 200여명이 현장에 참석해 순창사랑상품권 발행을 축하했다. 군은 이날 특별이벤트로 준비한 경품권 추첨에서 총 20점의 상품권 일련번호를 뽑아 상품권 일련번호와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후 5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

품권을 경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경품 추첨을 마친 인사들은 순창농협 본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직접 순창종합시장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며 상품권 구입 독려 및 전통시장 장보기 홍보도 병행 추진했다. 같은 날 군 산하 공무원을 비롯, 지역 공공기관, 사회단체 직원 등도 행사에 대거 동참하며 상품권 유통 알리기에 나섰다. 특히 상품권 정식 발행일과 시장 장날이 같은 날 이뤄져, 장을 보기 위해 시장을 찾은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상품권 유통 알

리기에 최적의 홍보효과를 거두는 등 상품권 유통의 전망을 밝게 했다. 군은 경시 7%, 명절 10% 할인율을 내걸고 10억 규모의 상품권을 유통할 예정이며, 가맹점의 편의를 위해 당일 환전이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현재 지류상품권만 발행하는 것을 사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도 내년부터 발행할 방침이다. 지역내 대상 가맹점 등록율도 90%를 육박하며 상품권 사용처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

언어교육·문화·복지·맞춤형 일자리·친정방문 지원 등

임실군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현재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228세대에 825명으로, 이들을 위한 문화, 복지, 일자리 정책에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심 민 군수는 "다문화 가정내 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군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추진 중인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언어와 문화, 복지, 경제, 인권 등 다양하다. 언어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

로벌 마을학교 사업을 전개 중이다. 다문화 이해반과 한국어학당, 이중언어반 등을 개설하고 결혼이주여성 참여하는 필봉농악, 댄스댄스 교육을 통해 문화욕구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가족교육, 부모교육, 학부모교육, 가족캠프를 연중 실시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남원시가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꿈꾸는 애벌레' 특별전이 지난달 20일 개막 이후 총 4500여명이 다녀가는 성황을 맞고 있다.

꿈꾸는 애(愛)벌레 특별전 성황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총 4500여명 다녀가

남원시가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꿈꾸는 애벌레' 특별전이 지난달 20일 개막 이후 총 4500여명이 다녀가는 성황을 맞고 있다. 산림청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백두대간 생태계의 건강지표를 알려주는 60종 3000여 마리의 다양한 애벌레와 곤충을 만날 수 있으며, 애벌레의 소중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백두대간애벌레생태전시 ▲애벌레 성장 미션 ▲애(愛)벌레야 놀자' 등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알-애벌레-번데기-성충으로 이어지는 곤충의 한 살이를 학습할 수 있는 ▲애벌레성장 미션은 교육적 내용과 놀이 요소가 많아 학부모와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시관 관계자는 "지난 한주 동안 태풍 다나스와 폭우 등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해 주셨으며, 남은 행사기간에도 더욱 알차고 풍성한 전시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모든 연령대가 입장할 수 있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전시관 입장객은 추가비용 없이 관람할 수 있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이밖에 전시관 주변에는 육묘장, 뽕사육 계곡이 인접해 있으며 물놀이터, 모험체험시설, 에코릿지, 백두대간캠핑장, 트리하우스 등 놀이시설과 숙박시설이 있어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tou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공식 블로그, 외부인에 '큰 호응'

순창군 공식 블로그 '순창이 참 좋다'가 불거리, 먹거리 등 순창군 홍보 창구로 홍보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군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sunchang_story)는 명소, 먹거리 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개설이후 정식 운영에 들어가 방문자와 조회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다양한 관광지 소식을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순창마을, 인물에 대한 내용도 전해주고 있어

군의 대표 소통창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현재 블로그는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기자단 10명이 군정과 축제, 명소, 먹거리 등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취재하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고 있다. 여기에 모바일 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젊은 세대에겐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해 홍보와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영상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본격 운영할 준비를 마쳤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임실군은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를 맞이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화사한 불거리를 제공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군은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임실읍 시가지 주요 도로변 꽃박스와 화단에 약만여본의 여름꽃을 식재하며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여름꽃은 수수한 매력의 아계라 텃밭부터 화려한 색상과 모양새로 이목을 끄는 초블맨드라미까지 총 7종의 다양한 화종으로 식재했으며, 9월 중순까지 개화해 임실의 거리를 환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봉황인제화당 앞 회전교차로 약 143㎡면적의 교통섬에도 사계절 꽃 화단을 신규 조성했다. 화단 중앙부에는 꽃을 가득 담은 지계 조형물을 포인트로 설치하고 바다에는 대청무늬 형태로 꽃을 식재함으로써 삭막한 도로환경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주요관문을 지나는 통행객들에게 사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느낄 수 있도록 계절별 어울리는 꽃을 다양한 컨셉으로 식재하여 색다른 불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여름철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고 미관을 해치는 풀과 념를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초작업과 폭염에 따른 수목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수 등 사전작업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우수 농식품 한 자리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와 남원시우수농식품연구회는 광한루원 일원에서 광한루 600주년 기념행사 기간(2~4일)에 지역에서 생산하는 30여가지 가공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우수 농식품 알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전시·홍보장 맞은편에서는 한여름 밤의 막걸리 주막이 함께 열릴 예정으로, 남원 막걸리와 회원들의 생산제품인 도토리묵, 두부김치 등의 별미 안주도 맛 볼 수 있으며, 관광객은 물론 남원시민도 지역 농산물 가공 농식품 제품을 다양하고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18개 업체로 구성된 남원시우수농식품연구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소규모 창업 우수사업장 모임을, 2011년 발족되어 남원 농식품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신규 창업농을 위한 가공기술 제공,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상우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소규모 창업농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